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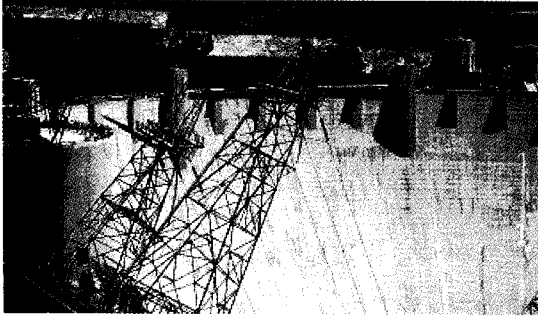
## Power-Gen International 2009 참관기



이도윤  
용성전기(주) 무역과 대리

2009년 12월 5일, 인천공항에 모인 34명의 참관단 일행은 대한전기협회의 인솔 하에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여 POWER-GEN International 2009 참관을 위한 라스베이거스까지 총 6박 8일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참관단의 주목적인 전시회 참관 및 각종 컨퍼런스 참가 외에 당사에서는 이번 전시회의 호스트로 참가, 제품 홍보라는 또 하나의 중책을 어깨에 짊어진 채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에 자다 깨다를 수 차례 반복하다보니 어느덧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이 구름사이로 아침햇살과 함께 참관단 일행을 반겨주었다.



샌프란시스코는 PGI 2009를 참관하기 위한 경유지로서의 여정이었지만 미국 태평양 연안 로스앤젤레스 다음 가는 대도시다운 위용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샌프란시스코와 마린반도를 연결하는 조셉 B. 스트라우스의 걸작 금문교(金門橋) 방문을 마지막으로 POWER-GEN 2009가 개최되는 관광, 도박 그리고 컨벤션의 도시 라스베이저스로 발길을 옮겼다.

전시회가 열리기 전날인 12월 7일, 전시회의 호스트로 참가하는 당사의 부스 설치를 위해 후버댐 견학 일정한 참관단과의 동행을 잠시 미루어 놓았다. 아래의 인용문은 후버댐을 방문하지 못한 저를 위해 저희 회사 한 임원분이 들려준 체험기이다.

“콜로라도 강을 막아 만든 후버댐은 당시 경제공황 대책의 일환으로 뉴딜정책의 가장 큰 프로젝트였다고 한다. 1931년부터 1936년까지 하루 약 5,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로 진행되었으며, 미국 31대 대통령 이름을 딴 이 댐은 발전용량이 2,080MW를 자랑하고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 중 하나인 레이크 미드를 탄생시켰다고 한다. 완공 이후 안전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 저로 하여금 안전과 관련된 설계, 시공, 유지·보수에 대한 “원리·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했다.

두 시간 남짓한 댐 견학을 마치고 인간의 능력이 자연을 정복한 상징이자 현대 공학 건축의 가장 완벽한 건축물인 후버댐을 몇 장의 사진과 기억 속에 담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아직 전시회 전날이라 깔끔하게 정돈된 전시장의 느낌은 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 20여 년간 가장 신뢰가 가는 전력전시 중 하나인 PGI의 장대한 규모를 느낄 수 있었다. 각 회사별 독특하고 개성 있는 부스설계 및 제품 디스플레이를 위한 회사별 전시담당자의 바쁜 손길은 앞으로 펼쳐질 3일간의 글로벌 홍보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듯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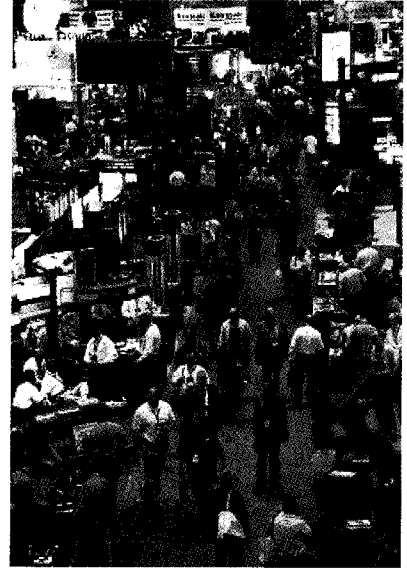


12월 8일, 드디어 PGI Opening Keynote Session을 시작으로 주한미대사관 상무부에서 마련한 전시회장 2층에서의 간단한 미팅과 다과를 마친 후 각자의 전시회 참관 목적에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당사 부스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분주하게 오가며 긴장된 마음을 “잘 해낼 수 있다”는 한마디의 다짐과 함께 미국에서의 첫 전시회를 시작하였다. 미국의 한 전력기자재 수입업체의 방문을 시작으로 당사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여러 업체의 질문이 이어져, 처음 느꼈었던 긴

장된 마음은 오간데 없고 그들의 요구사항과 제품문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하다보니 어느덧 시계는 전시 첫 날 종료를 알리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떠나오기 전 시차적응에 대한 걱정은 그저 기우로 그쳤고 침대에 누인 몸은 그 날 전시회 성과에 대한 정리를 할 새도 없이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12월 9일 전시회 둘째 날, 첫 날 보다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어제 부족했던 점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전시장으로 출발했다. 부스를 찾아오는 고객을 상대로 수동적인 상담이 이루어진 첫째 날과 달리 카탈로그와 상담 자료를 준비해 직접 고객을 찾아가 “한국에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이 제품의 사용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등의 능동적인 영업자세로 미처 부스에 방문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브랜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두산중공업, ALSTOM, SIEMENS, ABB 등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을 시작으로 둘러본 전시장은 플랜트 시스템에서 작은 기자재까지 전력산업에 사용되는 전반적인 제품의 최신동향을 파악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으며 진열된 제품에 약간의 관심만 보여도 제품의 원리까지 설명해 주는 전시담당자들의 모습은 짧은 전시기간 동안 많은 부스에 들리는 고객을 상대로 얼마나 임팩트있게 제품을 어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 주었다.

드디어 긴 여정의 마지막 날.... 첫째, 둘째 날과는 잠잠해진 바이어들의 방문..... 지난 3일간 진행했던 업무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끝내고 그동안 바쁜 일정을 이유로 말 한마디 건네 보지 못한 인접한 부스의 전시담당자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을 마지막으로 3일간의 전시일정을 끝마쳤다.

1,300여개 전력산업 관련 업체의 참가, 5,000여 가지가 넘는 출품 제품 수, 200개가 넘는 교육차원의 컨퍼런스가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된 POWER-GEN International 2009는 저로 하여금 원자력을 비롯한 세계전력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우리 회사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2009년 PGI 참관을 주관하신 대한전기협회 박천진 부회장님과 행사기간 동안 불철주야 참관단 일행을 위해 수고해주신 안영태 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0년 올랜도에서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며 전체 34명의 참관단 일행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KEA